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동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회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저비 광명
찬덕 연등제작사
 031)792-6288/794-4055

부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11월 30일(음력 10월 29일) 수요일 (주간) 제 554 호

인터넷포교 '주목'

각 종단·단체 "내년 인프라·콘텐츠 확보 주력"

내년도 불교계는 인터넷포교에 상당한 공력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각 종단과 단체들이 단순한 사이트를 개설하고 기존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포교전략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콘텐츠' 확보에 주력하고 멀티미디어·블로그·커뮤니티를 통해 다각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본격적인 인터넷포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인터넷포교에 대한 '주목'은 그동안 전산망 구축과 네트워크 연결, 관련DB구축을 통해 인프라를 완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봄부터 영문 중문 러시아어 서비스를 해온 불교포털 부다피아를 운영하는 현대불교신문사, 내년 1월 '국제사이트'를 오픈하는 조계종 및 종단산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포교사단과 태고종, 천태종, 불교방송 등이 적극적인 콘텐츠 생산과 서비스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다.

부다피아는 내년부터 영문 웹페이지 서비스를 전세계가 공유하는 사이트로 다각화하며, 회원에게 e

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계종은 △사이버 선 수행 △간화선과 한국불교의 선택 등을 다국어로 서비스하는 '국제사이트'를 통해 세계 네티즌과 교류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전국의 전통사찰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정보화사업단을 통해 '정부예산을 통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저작권 등록사업'을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생산을 넘어 지적 재산권까지 확보해 인터넷포교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포교사단도 사이트 리뉴얼과 함께 내부적으로 인터넷포교시스템을 완비했다. 웹진을 게재하고 블로그·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인터넷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포털사이트에 잘못된 불교정보를 바로잡는 '불교바른정보사업단'을 발족해 대외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불교바른정보사업단 홈페이지(www.pogjosa.or.kr)는 7개 포털사이트와 연동돼, 불교관련 질문들이 실시간으로 링크된다.

이은비 기자 remy@buddhapia.com



동국대 '새로운 100년 창조' 선포

동국대(총장 홍기삼)가 11월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100년 창조(New Centennial Dongguk)'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 태우주택회장 구자선씨 등 동문들이 약 92억원의 발전기금을 약정했다. 글·사진=조용수 기자

'佛畫匠' 중요무형문화재 118호로 지정

기능보유자 석성 스님·임석환씨 예고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11월 4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화장(佛畵匠)을 중요무형문화재 제 118호로 지정하고, 기능보유자로 석성 스님(한국의 불화)·편지위원장 임석환(수산전통불교미술원 원장)씨로 인정 예고했다. 불화장은 불화 제작기술로 그간 단정장 보유자에 의해 전승돼왔으나, 종목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이번에 분리됐다.

구해 스님(영산재 기능보유자 지정 문화재청은 구해 스님(前 봉원사 주지)을 영산재(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불교와 사회 포럼' 창립세미나 성료

300여명 참여 '열띤 토론'

'불교와 사회 포럼'(공동대표 이평래·김광삼·김규철·김홍표·성태웅)의 첫 공식행사인 창립세미나가 1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조성택 고려대 교수, 박세일 서울대 교수, 노부호 서강대 교수 등 사회현안에 불교적인 접근을 시도한 발제자와 논평자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했다.

관련기사 13편

불교와 사회 포럼은 불자 지성인 누구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금년에 가입하는 회원에게는 <불교평

론> 창간호부터 23권까지의 내용을 수록한 CD와 1년 무료구독권을 증정한다. 홈페이지(forum.buddhapia.com)에서 회원가입 할 수 있다.(02)2004-8233 박익순 기자 info@buddhapia.com

빛고를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 이과같이 들었다 -다문제일 이안다
 도법 스님 11월 30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KT정보센터

"황우석 박사 흔들기 중단하라"

불교계 단체 '황박사 외호' 선언, 지지모임 결성

'난자 매매' 문제로 윤리 논란에 휩싸인 황우석 교수를 지지하는 불교계 안팎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조계종 서울광역신도회와 불교인 권위를 비롯한 12개 단체로 구성된 '황우석 박사 흔들기 중단하라'는 11월 25일 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우석 박사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재가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황우석 박사의 연구 자체를 무산시키는 일부 시민·종교단체, 특정 언론의 잘못된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특정종교 교리에 따른 잦아 아닌 보편 타당한 기준에 따라 난자제공과 줄기세포 연구의 가이

라던가"고 역설했다.

"황우석 교수를 적극적으로 외호할 것"이라고 선언한 재가모임은 ▲학계, 법조계, 종교계로 구성된 줄기세포연구윤리위 구성 ▲줄기세포 연구 지원본부 창립 ▲황우석 박사의 세계줄기세포 허브 소장 복귀 등을 촉구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홈페이지(www.laybuddhist.net)에 황우석 박사 지지 배너를 마련해 불자들의 격려 메시지를 받고 있으며, 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과 장항숙 의원은 12월 발족을 목표로 황우석 박사 지지 국회의원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선택 의원은 "논란이 조속히 종식되고, 황우석 교수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지모임 결성배경을 설명했다. 유철주 기자 yjc@buddhapia.com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콘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형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조계종 '간화선 기본수행프로그램' 내년 3월 선보여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간화선을 재가불자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조계종은 스승이 제자에게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왔던 간화선 수행법을 재가불자 눈높이에 맞춘 '간화선 기본수행프로그램'으로 개발, 내년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조계종이 재가자를 대상으로 보급하는 '간화선 기본수행프로그램'은 총 1품-10품으로 구성돼 매주 1차례씩 11주간 진행된다.

1-4품에서는 정권학립을 위해 불교기초교리와 간화선에 대한 기초이론을 중점적으로 배운다. 4-10품에서는 간화선을 이해하고 화두 참구의 요령을 습득한 뒤 직접 실천수행에 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재가자들은 아침 저녁으로 참선을 하며 1일 수행과제를 이행하고 자기점검표를 통해 개인의 수행정도를 체크할 수 있다.

일반인 대상 10품으로 구성 11주 과정 자가 점검표·인터넷 카페 등도 운영

또 수업시간 내에 해소하지 못한 궁금증은 인터넷 '간화선 기본수행카페(www.buddhism.or.kr/seon)'에 접속해 질문할 수 있다. 포교원은 수행카페를 통해 참가자들의 수행과정도 서로 공유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마지막 11주

에는 1박 2일간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며 회향마당을 갖는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15만원.

봉은사 불광사 조계사 등이 운영사찰로 검토되고 있으며 자세한 장소와 일정 등 세부진행계획은 내년 1월에 발표된다.

포교원은 또 1박2일·5박6일용 단기 프로그램과 대학생 청소년 어린이를 위한 계절별 프로그램 등도 개발 중에 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진명 스님은 "전국 선원장스님들의 감수 아래 지난해 3월부터 1년 8개월간 개발한 프로그램"이라며 "간화선 증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은비 기자

'할'

수많은 사람을 보면 이런생각이...

할로 존재하는 직업이 없다는 것은...

넌 직업이 뭐니

세척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음식을 제게를 먹어준다

그림·조태호

법행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Daewon Buddhist Academic Institute

2006년 전학기 대원불교대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안내

모집과정

- 입문과정 (서울·부산): 불교입문과정 주.야간반 각00명 [주1회출석,6개월과정]
- 대학과정 (서울·부산):
 - 불교학과: 주간, 야간 각100명 [주2회출석 / 주간 오후2시, 야간 오후7시]
 - 불교상당심리치료학과: 주간, 야간 각100명 [주2회출석 / 주간 오후2시, 야간 오후7시]
- 대학원 과정: 서울, 부산 야간반 30명 [주2회 출석 / 야간 오후7시]
- 통신과정: 00명 [대학원은 제외]

강의시간 ●주간/오후2시부터 4시40분까지 ●야간/ 오후7시부터 9시40분까지

지원자격

- 입문과정: 불교기본 교육을 받고 싶은 초심자
- 대학과정: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자
- 대학원 과정: 불교교양대학졸업자 및 해당학력이 인정되는 자[포교사 자격소지자 우대]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 학업계획서 및 졸업증명서 각1부(대학원 과정만 해당)

전형일정

- 원서교부: 2005년 12월 1일 - 2006년 2월 20일
- 원서접수: 2005년 12월 1일 - 2006년 2월 20일
- 입문, 대학, 대학원전형: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2006년 2월 21일 (개별통보)
-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서울 / 2006년 2월 26일(일) 오전11시 3층 큰법당 부산 / 2006년 3월 5일(일) 오전11시 2층 큰법당

전형료 및 수업료

- 전형료: 입문과정 1만원 / 대학과정 2만원 / 대학원과정 5만원
- 수업료: 입문과정 10만원 [기성회비, 교재비, 행사비포함]
- 학기당: 대학과정: 30만원 [기성회비, 교재비, 행사비포함] 대학원과정: 40만원 [기성회비, 교재비, 행사비포함]
- * 수업료는 입학식전에 완불하셔야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카드결제 가능) 1학기에 한하여 학사이전기념으로 입학생 전원 20%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전형료 및 수업료 납부

- 서울: 국민은행 098-01-0244-009 [예금주: 한국불교대원회]
- 부산: 기업은행 252-028746-01-017 [예금주: 한국불교대원회]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서울: 서울 대원불교대학 교학과 02) 706-1570.1 / 754-1613 / 773-9171
- 부산: 부산 대원불교대학 교학과 051)583-7700 / 583-7811~2
- * 전화 신청 시 입학원서 및 안내문을 발송 해드립니다.

문의

- 서울대원불교대학: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2층 ☎ 02)706-1570, 1571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 02)754-1613/773-9171 / 팩스 02)771-6796
- 부산대원불교대학: 부산 금정구 장전1동 382-2 ☎ 051)583-7700/583-7811 ~ 1

대원불교운동권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대학원** www.idaewon.or.kr www.buddhaschool.or.kr